

# 근대 모성담론을 통해 본 한국 가족정책의 방향

The consideration of family policy through a discourse about modern motherhood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서수경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Lecturer : Seo, Soo-Kyung

## ◀ 목 차 ▶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결론 및 제언 |
| II. 근대 모성과 변화된<br>사회의 가족정책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discourses about modern motherhood in Western and Korean society in order to find a new basis for the family policy. The general view that motherhood is merely natural ceased to be valid since the early 1980ties. Nowadays one is rather inclined to define motherhood as a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fact which goes far beyond the biological dimensions. The concept of motherhood which has been useful to fulfil the industrialisation in the modern times cannot be applied to the changed world of our times. The family policy which is closely connected with women must not start from the modern motherhood ideology but from the context of the changed life of woman in our times. I hope that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stimulating the discourse about the family policy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changed living conditions.

**주제어(Key Words):** 근대 모성 담론(discourse about modern motherhood), 가족정책(family policy)

### I. 들어가는 말

사회변화, 특히 근대화 및 산업화의 발전 과정은 지난 몇 십년간에 걸쳐 가족연구에 자주 등장해 온 주제이며, 가족관계 및 구조, 그리고 가족생활과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산업화를 통해 인간

은 한편으로 경제적 풍요로움을 경험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화와 근대적 논리에 따른 인간소의 및 억압과 종속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근대 사회의 가족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런 모순과 갈등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특히 근대 시대에 있어서 여

성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같은 근대화 이념과는 무관한 타인을 위한 삶, 즉 가족과 남편 그리고 자녀를 위한 삶의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어 왔다. 산업화와 더불어 탄생한 남성과 여성의 노동분업은 남성과 여성의 본성적인 차이에 대한 구분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본성적인 차이에 대한 강조는 변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불변하는 진리와도 같이 수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변화된 사회에서의 새로운 남녀역할과 가족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찾지 못한 채 근대 사회의 이상이었던 여성과 어머니의 희생만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진정한 가족 갈등과 문제에 대한 해결과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오늘날 세계는 근대화에 수반된 수많은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보화사회, 위험사회, 포스트모던사회, 탈근대사회, 접속의 시대 등으로 불리워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가족 또한 이에 적응해야 하는 능력을 부여받고 있다. 그동안 가족생활과 여성의 삶을 지배해 온 근대 사회의 이상들에 대한 반론과 성찰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대성에 대한 문제의식, 특히 그동안 여성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당연시하였던 근대 모성 이념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성들의 모성애는 타고난 것이라는 보편적 믿음은 1980년대 서구의 여성학과 사회학 연구자들에 의해 의문시되었고, 한국 사회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물들을 통해 비판받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모성이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산물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서구와 한국 사회의 근대 모성애의 생성 및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변화된 여성의 삶의 맥락이라는 측면을 가족정책과 같은 가족과 관련된 분야와 문제에 부각시키고자 한다. 즉 오늘날의 변화된 사회와 여성들의 삶의 변화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족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삶의 변화는 곧 직접적으로 가족형태와 생활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가족정책인 것이다. 가족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 오늘날의 변화된 사회에서 여성들의 삶 또한 변했다는 것이 사실이므로, 변화된 여성의 삶은 생물학적으로만 규정하던 기존의 근대 모성 이데올로기를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할 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모성을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산물로서 파악할 때, 우리는 현재의 가족 갈등과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II. 근대 모성과 변화된 사회의 가족정책

### 1. 서구 근대 가족의 성립과 모성애의 발전 과정

여기에서는 모성이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사회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벡-게른스하임(Beck-Gernsheim, 1990, 1998, 2000)의 연구와 서구 근대 교육학자들의 자료를 중심으로 서구 근대 가족의 성립과 모성애의 발전 과정을 4단계로 살펴보겠다.

#### 1) 근대사회로의 이행과 성역할의 변화

서구 산업사회에서 산업화 이전 시기까지의 지배적인 노동과 삶의 형태는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가족이 아닌 한 집안(Ganzes Haus), 즉 경제공동체였다. 부부 관계나 부모자녀 관계는 주로 감정보다는 가족 경제의 요구들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자녀는 상속자로서, 자신의 성을 물려줄 사람이자 노동력 제공자로서, 그리고 부모의 노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존재였다(벡-게른스하임, 2000: 40-46). 즉 산업 사회 이전의 삶의 형태는 본질적인 영역들에서 전체로서의 가족과 관련되어 있었지 개인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가족 경제를 위해 아이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고, 따라서 어머니가 되는 것은 (결혼한) 여성의 삶에서 당연시되는 규정이었다. 산업화와 더불어 과거에 지배적이던 노동과 삶의 일치는 깨지고, 가족은 노동 및

경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즉 한 집안이 깨어지면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새로운 노동분업이 탄생하게 되는데 남성은 외부세계, 직업, 사회를 담당하고, 여성은 가정, 집안일, 가족을 맡게 된다. 이러한 역할의 분리는 여성과 남성의 본성적인 차이에 대한 구분도 하게 되는데 남성은 활동성, 추진력, 힘 같은 본성을 그리고 여성은 온순함, 겸손, 감정, 감수성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극단화된 성역할 이념이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성역할 이념은 개인의 일대기를 규정하고, 국가적 통제 속으로 옮겨져서, 교육제도와 법, 교육목표와 법칙 속에 확고하게 고정되어 여성의 활동범위를 타인을 위한 삶인 가정으로 제한하게 된다. 즉 여성과 남성의 뚜렷한 성역할의 구분은 선천적인 것이 아닌 산업사회의 토대에 속해 있는 것으로 산업사회 건설을 위해 필요했던 내적인 건설 계획의 일부인 것이다. 한 집안의 해체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가족이라는 집단이 아닌, 개인이 중심을 차지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생행로가 등장하는데 생존의 토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집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동이 아닌 시장에서의 개인적인 성취가 되며, 시장의 성장을 위해 업적과 규율, 목표 지향성과 관찰능력 같은 새로운 능력과 행동양식을 개인에게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개인적 성취를 토대로 하는 근대적 노동 및 삶의 형태는 신분의 제약을 넘어선 개인의 자유와 평등 같은 근대화 이념에서 단지 남성에게만 허락되었던 불완전한 반쪽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양분된 근대(Halbierte Moderne)'인 것이다. 남성이 시장에서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원기를 북돋워주며 격려하고 확인해 주는 등, 이른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여성의 주된 노동 및 삶의 형태였다(백-게른스하임: 11-46).

## 2) 근대 모성애의 발전과정

근대 사회로의 이행과 성역할의 변화는 또한 아동기의 역사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전근대 시대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은 많은 집안 일과 들일 속에 끼워 넣어졌던 하나의 과제였다면,

근대에 이 일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고유한 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18세기에 철학자, 신학자, 의학자 그리고 후에 교육학자와 심리학자가 가세하여 아동기에 대한 연구물들이 발표되면서 의식적인 육아의 지침들이 등장하고, 아동 발달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모성은 여성에게 본능적이라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모성역할의 의미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당시의 사회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즉 18, 19세기는 신분사회에서 시장의 법칙에 의해 조종되는 산업사회로의 점진적인 이행이 이루어지면서 신분상승을 위하여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는 교육적 노력들이 아이에게 집중된 점과, 근대 사회로의 이행과 더불어 세계의 지배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진보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확산되면서 인간의 본성 역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개선 가능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아동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우선 건강상의 위험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에서 시작하여, 아이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아무에게나 아이를 맡기지 않고, 가장 가깝고 책임 있는 것으로 규정되는 사람인 어머니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점이다(백-게른스하임: 57-69).

아기로부터 해방되어 즐겁게 노는 도시의 엄마들은 그 노는 동안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가. 여성들은 자기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아기 낳기를 거부하려 든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어머니라는 신분이 무거운 짐이 되면 여자들은 그 짐에서 벗어나기 위한 완벽한 수단을 찾는다. - 아이를 기르지도 않고 낳지도 않겠다는 여자들은 그들의 첫째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나쁜 관습의 책임은 물론 여자들만의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유럽의 문화 전반에 걸쳐, 즉 학문, 예술, 철학과 기타 관습이 그와 같은 타락상을 노출했다고 본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협조하는 의사나 남편들, 특히 어머니들의 참견을 뺄 수 없다. 어머니들은 자기 딸이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고생시키기를 좋아하는 남자라는 악평을 두려워하며, 의사들은 여자들의 평가를 두려워한다. - 여자들이 그들의 의무(유아시기 동안 모유를 먹이고 돌보는)를 포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도덕심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각자가 맡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자의 의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의 도덕적 질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가정의 중심인 여자에게 그 일차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타락은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에서의 즐거움은 가족간의 애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어머니와 아기의 애정은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이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집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든다. 그런데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자기 아이를 기르게 되면 도덕적 질서는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고 자연적인 정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솟아난다.(루소, 2000: 30)

모성애는 순수한 생각으로 행동하며, 그녀의 심장을 믿음으로 채워 주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양되어 있기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성애는 뜨겁게 굽히지 않고 자람에 따라서, 또 힘으로 고무되고 신앙으로 부추겨짐에 따라서 더욱 억척스럽게 노력을 하며 갖가지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모성애는 결코 절망을 모릅니다. -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푸념이 어머니로부터 나와서는 절대 안됩니다. 어머니는 바로 이 주제에 관심을 갖도록 소명 받았습시다. 그러기에 그것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녀의 가슴속에 양심의 소리가 그것을 말합니다. 의무의식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없는 곳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용기, 신뢰, 사랑의 정신으로 수행된 의무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예는 없었습니다.(1819년 3월 15일)(페스탈로치, 1999: 148-149)

1762년에 출간된 루소의 '에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성애에 대한 의무와 역할 그리고 여성들의 가정으로의 귀속이 근대 초기에 서서히 뿌리내려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루소가 강조하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당시에는 모든 여성들에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님을 그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결국 루소가 에밀에서 보여주는 모성은 후에 페스탈로치나 프뢰벨 등과 같은 근대 교육학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게 되고, 본성으로서의 모성애와 어머니의 역할은 서구 근대화 과정 속에서 확고하게 그 자리를 굳혀가게 됨을 볼 수 있다. 결국 모성역할의 강조는 자연스럽

게 어머니의 교육 혹은 교육자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성의 역할이 점점 더 여성의 가장 고유한 것이 되면서 여성은 오로지 어머니라는 것을 토대로 정의되고, 여성의 소망과 희망, 기쁨과 고통, 생각과 행동 등 모든 것은 아이라는 한 가지에 맞춰야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견해는 많은 의학적 저술들에서도 어린 소녀의 교육을 오로지 출산기능의 관점에서만 고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성의 결과로 보면 양 성은 전혀 동일하지 않다. 수컷은 순간적인 행위로 끝나지만, 암컷은 일생을 통해 적어도 짧은 시대를 통해 암컷이어야 한다. 즉 임신 중에는 건강에 주의해야 하고, 산후에는 휴식이 필요하다. 아기 양육을 위해서는 집 안에서 편안히 있어야 하고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부드러움과 애정이 있어야 한다. 여자는 아이와 그의 아버지를 연결시켜 주고, 여자만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자식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 가족 전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인내심이 요구된다. 양 성의 상호적인 의무가 엄격한 것은 양 성에 있어 동일한 것이 아니고, 또한 동일할 수도 없다. 이 차이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산물이다. 즉 어린이를 말아야 할 성은 어린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 남녀는 평등하고 그 의무 또한 동등하다는 막연한 주장은, 이것저것 의미 없는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이다. 여자는 반드시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라고 당신들은 말한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여자의 고유한 사명은 아기를 낳는 일이다. (루소, 238)

이렇게 어머니 역할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숭배가 나타나게 되는데, 모성 이데올로기에까지 이르는 모성 신화가 그것이다. 이는 18세기에 시작되어 19세기에 번창하였으며 20세기에도 계속되어 교육서와 문학작품뿐 아니라 그밖의 예술에까지도 스며들게 된다. 모성은 노래로 찬미되고 시로 지어지며 수많은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예술가에 따라 비극적이고 장엄하게 혹은 낭만적이거나 감상적으로 묘사되며 찬미되고 미화되며 격정적으로 숭앙된다. 어머니 역할에 대한 호소는 부르주아 계급의 여성에게서 제일 먼저 확산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농민 계층의 여성들에게 그리고 공장이나 가내 수공업 또는 남의 집

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 계급의 여성들에게 확산된다. 하지만 이 집단들에서는 부르주아 중간층 여성들의 경우와는 다른 모습이 전개된다. 근대시대에 어머니 역할의 부상은 여성이 생산 활동으로부터 배제됨과 동시에 여성의 삶에 양가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즉 새로운 부담이 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보상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과거에는 기초적인 보살핌에 불과했던 육아가 이제는 많은 돈이 드는 노동이 되었다. 아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과거보다 훨씬 많은 노력, 시간, 관심, 세심함과 진지함이 요구된다. 어머니는 아이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들이 정해 놓은 요구사항들에 종속되며, 아이의 생존 가능성은 어머니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된다.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된 종속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부르주아적 원칙과는 모순되지만 본성이라는 것에 의해, 그리고 어머니 역할이라는 것에 의해 정당화된다. 어머니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삶의 가능성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고착시키는 것이 된다. 즉 남성에게는 시장이 요구하는 독립성이, 여성에게는 육아가 요구하는 자아포기가 삶의 가능성인 것이다. 어머니노릇은 이중적 의미에서 여성의 삶의 과제가 된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타고난 본성을 완성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삶의 작은 부분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새로운 부담과 함께 새로운 보상, 즉 적어도 가정이라는 틀 내에서는 새로운 기회 또한 생긴다는 사실이다(백-케른스하임: 31-73).

### 3)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의미획득과 부담

산업화 과정이 더욱 폭넓게 진전되는 19세기 말에 노동계급의 여성은 집 밖의 생업 형태에 더욱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 부르주아 계급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정은 자가 생산의 장소에서 점점 더 소비의 장소가 되고 가정에서 직접 생산했던 생필품들은 시장에서 구입하는 일이 잦아진다. 결과적으로 미혼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일거리가 줄어들게 되면서 여성에게도 서서히 직업을 가지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유치원 보모나 교사 그리고 간호사와 같은 분야에 국한된 것이다. 노동

계급의 여성들과는 달리 부유한 가정의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게 되는 동기는 대부분 정신적 공핍, 즉 자기 일이 없는 삶에 대한 불만에 기인했는데, 이처럼 새로운 형태로 집 밖의 직장생활이 생기게 되면서 여성의 삶의 윤곽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여성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들이 생기고 자유의 공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통 및 통신이 확대되고 지리적 이동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독립과 자유의 공간을 획득하게 되고 직업에서의 선택 가능성의 폭도 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여성들의 집 밖의 직장 생활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자유의 공간을 허락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위험과 종속, 구속을 가져왔다. 즉 이제 여성들의 생존보장은 가족이 아닌 냉혹한 시장의 법칙에 종속된다. 바깥 세상에서 여성들은 한편으로는 가족과 가족의 통제로부터 독립되고 자유를 얻어 나만의 인생에 대한 소망을 키울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직장생활의 실제 조건들은 생계를 지속적으로 보장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으로부터 역사적으로 새로운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의 나만의 인생이라는 부정적 측면, 즉 집밖의 생활에서 위험과 불안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머니라는 자리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어머니 노릇은 부르주아 계급의 여성에게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부양처를 제공하였다. 여성의 존재가 더 이상 쓸모없게 되고, 가정에서도 여성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된다는 사실에 직면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즉 아이가 여성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로 부각되는 것이다. 이제 자식교육은 여성 삶의 최후의 보루가 된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모성의 사회적 의미는 부르주아 계급 여성의 가장 중요한 권력 수단이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 물론 19세기 말은 서구의 여성들에게 무척 힘든 시기였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직업생활이 점점 더 중요해졌지만, 동시에 여성들은 모든 나은 직업에서 전반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기만의 직업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인 것이다. 당시에 어머니라는 것은 여성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하게 도전적이고 존경받으며 만족스러

운 영역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성이 어머니라는 일을 고수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적 지위와 원하는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한 유일한 토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백-게른스하임: 75-116).

#### 4) 아이를 갖는 새로운 동기와 조화가능성의 추구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후반 사이에는 정치 및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많은 변화와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여성의 삶의 윤곽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즉 과거에는 그토록 밀접했던 여성과 가족의 관계가 20세기 말에는 점점 더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나만의 인생에 대한 요구와 열망이 갈수록 많은 여성들에게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권위적인 교육에서 아이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방식의 변화, 다양한 생활 형태가 출현하는 가족구조의 변화, 20세기 후반기 이후 대규모로 등장하는 출산율의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같은 요인들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여성의 평범한 일대기의 모습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Peukert, 1991: Beck-Gernsheim, 1998). 여성의 교육 기회의 확산, 직업세계의 발전, 여성의 역할 및 가정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가족 이상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사회적으로 보다 넓게 확산되며, 여성 삶의 중심이며 내용과 의미를 부여했던 자녀 교육이라는 과제가 이제는 여성의 삶에서 상대적으로 점점 더 미미한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새로운 가족 이상의 모토는 성별에 따른 엄격한 구분이 아닌 유연한 노동 분업, 남성과 여성간의 파트너십 쪽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사상은 재판 판결과 정책에 수용되기도 하지만,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실현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분야에서는 그러한 이상이 관철되고 있는데, 바로 젊은 여성들의 인생 계획에서 그러하다. 오늘날의 서구 산업국가들의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은 오직 타인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운명 지워지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은 자신의 직업과 가정이 연결되기를 원하며, 가

정 외에도 나만의 인생을 간직하고자 한다. 많은 여성들은 직업생활을 통해 가정생활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경제적 합리성의 원리에 의해 규정되는 또 다른 시장의 법칙에 종속된다. 즉 속도, 업적, 경쟁, 규율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Beck, 1990: Beck-Gernsheim, 1998: 백-게른스하임, 2000). 따라서 직업노동은 언제나 개인적 능력과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며, 삶을 철저히 제한하고 단순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시장은 자유로운 임금 노동자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은 가사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덜 자유로운 임금 노동자 인 것이다. 이처럼 직업 생활의 만족 뒤에는 상당한 내면의 부담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많은 서구 여성들이 분명히 의식하게 된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나만의 인생을 위해 직업을 포기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 노동이 나만의 인생을 위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딜레마인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서구 여성들이 어머니가 된다는 것과 나만의 인생이라는 갈등 가운데서, 즉 나만의 인생을 추구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다. 즉 그들은 나만의 인생을 위하여, 어머니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최근 연구들에서 보여지듯이 오늘날에도 의식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여성들은 단지 소수일 뿐이며 대다수는 아이들, 혹은 최소한 아이 하나는 가지려고 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근대 시대의 모성 역할을 생물학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이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관찰하면, 아이를 가지려는 동기가 이전 시대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구 여성들에게 가정과 아이는 아직도 인생 계획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모든 희망과 기대를 거는 우선적인 인생 목표는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머니가 되는 것과 나만의 인생을 모두 포함하는 조화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화 가능성이란 고도 산업 사회의 삶의 조건 하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소망인 경우가 많은데, 조화가능성이란 당연히

전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비로소 만들어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컨대 의식적으로 직업을 계획하고 주거지를 선택하며 많은 돈을 들여 육아를 준비하고 고용주와 배우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어머니와 협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구 여성들에게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이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일종의 인생계획이 된다. 어떻게 아이를 현재 상황과 장기적인 인생계획, 예컨대 직업생활에서의 요구나 기회,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등과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이다. 즉 이제는 어머니 노릇을 어떻게 나만의 인생에 대한 요구와 일치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다. 즉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만의 인생에 속하는 내용은 출신이나 사회 계층, 준거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르게 채워지기 때문이다. 이는 극단적 다양성이라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서구 사회의 부부 그리고 각 개인은 더 이상 19세기와 20세기 초반기처럼 인생을 그들의 자녀나 혹은 자녀의 미래와 연관시켜 계획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녀가 그러한 계획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생 계획에서 자녀는 부모의 전면적인 계발을 촉진하기 위해 고려되는 다른 것들 중의 단지 한 요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자녀는 개인의 발전이라는 길고 험든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닌데, 즉 개인의 발전이라는 척도가 자녀를 갖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산업 사회에서 인간은 경쟁과 출세, 속도와 규율이라는 명령을 주입 받는데 이런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고통스럽게 놓치게 되는 능력을 자녀와의 교류를 통해 재발견하고 욕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인내와 침착함, 배려와 감정이입 능력, 부드러움, 개방성, 친밀감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일방적으로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며 감정은 대개 거주장스러운 것으로 치부되는 직업세계에 대한 저항 영역을 모성을 통해 찾으려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서구 사회, 특히 서유럽 국가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성인의 삶에서 개인의 발전에 가장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경험 중의 하나인 것이다.

즉 오늘날은 새로운 사회적 조건의 영향으로 어머니 노릇으로 연계되는 만족이 새롭게 강조되고, 심지어 역사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자녀는 새로운 자극을 얻고 자신의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즉 내면적인 학습 과정 속에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서구의 많은 여성들은 아이를 역동적인 요소로, 즉 스스로 발전하면서 (부모의)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 여기거나 혹은 적지 않은 수의 부부가 '아이들이 삶을 집안으로 가져온다'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체험의 성격을 강조한다. 적지 않은 수의 새로운 여성들이 (그리고 때로는 남성들도) 경험을 위해, 심지어 경험에 굶주린 나머지 인생에서 아무 것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 아이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제 서구의 여성들은 더 이상 단순히 '아이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어머니라는 경험을 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벡-게른스하임: 167-251). 서구에서 모성애가 근대사회를 거치면서 오늘날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 왔는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생성된 산물로서의 모성애라는 독일의 사회학자 벡-게른스하임의 관점과 그의 설득력 있는 분석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성애를 이해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2. 한국 근대 가족과 모성담론

이제 한국 근대 가족의 성립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모성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1990년도 중반에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는 어린아이를 키워야 할 책임이 거의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있다는 생각과 여성의 이러한 책임은 생물학적 기능이라고 확고부동하게 믿어 왔던 것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다. 임신, 출산, 수유 같은 생물학적 요소뿐 아니라 양육 및 이데올로기라

는 사회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모성담론이 등장하는데, 그동안 모성을 생물학적 기능이라는 차원에서만 파악하여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 혹은 본능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르거나 혹은 아예 논의의 대상으로조차 취급하지 않았던 관행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을 모색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한국의 모성 연구는 주로 여성학과 사회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례 연구나, 특정 분야 내지는 매체 속에서 드러나는 모성의 유형이나, 모성 이데올로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아직은 충분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다 (이연정, 2001: 윤택림, 2001).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모성이 어떻게 그 자리를 잡게 되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한국 근대 가족의 성립과정과 모성애의 발전은 서구와는 다른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난 1960년대 이후로 진행된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짧은 시간 동안 제국주의적 팽창이라는 환경 가운데 위로부터 국가의 주도로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봉건체제인 전근대적 질서가 근대체제로 완전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선별된 전통적 요소와 선택적으로 수용한 근대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접합되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근대 이후 한국 가족에는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전통성과 근대성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족의 근대적 변형은 한국 가족의 전통적 요소를 활용하여 달성된 것으로서 전통 가족문화에서 근대적 사회질서 체제에 기능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은 해체되거나 약화되고, 기능적인 것은 유지되어 한국적 근대가족을 구성하는 근간으로 활용되었다 (문소정, 2001: 이진숙, 2001).

한국적 근대가족은 외양상 동등하고 자유로운 개인의 결단과 자율성에 입각하여 부부가 형성되고 그 사이에 태어난 미혼자녀를 포함하는 핵가족의 모습을 띤다. 즉 가족은 동등하고 인격적 만남을 강조하는 부부애, 자녀에 대한 근대적 애정과 보살핌을 중시하는 모습, 경쟁적이고 이해 타산적인 사회에

서 유일하게 사랑과 대화의 장소인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이미지를 갖는다.(문소정, 2001: 41)

외양상 근대가족의 모습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오늘날 한국 가족에는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심한 갈등과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적 주체를 생산하기 위한 학교제도 도입은 자녀를 한 집안의 생산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피부양자로서 훈육되고 교육받아야 할 위치에 놓이게 하였다. 비록 전통가족에서도 자녀가 훈육과 사회화의 대상이었지만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었고, 기본적으로 생산 및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른과 구별되는 삶을 살지도 않았다. 그런데 근대가족이 형성되면서 자녀들에게는 의존적인 아동기가 설정되고 그 기간 또한 연장되면서 자녀의 근대적 개념화와 함께 모성도 근대적으로 재구축 되었다. 근대적 모성제도에서 모든 여성은 여성 개인의 선택 이전에 잠재적인 어머니로 여겨지며 여성의 삶은 어머니되기를 중심으로 설계된다. 특히 한국 근대 가족에서 여성의 어머니 되기는 거의 강제적인 수준인데, 즉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관념 때문에 여성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강요당하거나 때로는 아들을 골라 낳기 위해 낙태를 서슴지 않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 모성애는 본능적으로 어머니에게만 존재한다고 규정되며 자녀에 대한 근대적 의미의 보살핌과 역할이 강조된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어머니가 집안에서 살림하고 아이를 키우게 된 역사는, 그렇지 않았던 역사에 비해 훨씬 짧았으며 고립된 가족 내에서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 역사는 더 더욱 짧다.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규범이 되어온 모성상은 강하고 희생적인 어머니로서 현재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 속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모습은 유교적 전통과 일제 식민지 시대와 자본주의적 공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각 시기마다 어머니에게 요구되었던 역할들을 여성들이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되어 온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 특정 계급에서 나타났던 가족형태 및 성별분업이 전 시기, 전 계급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것으로 확대 해석되었고, 이러한 가족형태에서 산출된 모성 논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수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 도시 중산층의 모성 이데올로기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일제시대 도입된 신식교육을 통해 보급된 과학적 모성은 당시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신식 모성은 중산층의 신식교육을 받은 신여성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과학적, 합리적, 위생적 자녀양육 방식이었다. 해방 후 혼란기를 지나 1960년대 한국 사회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서구사회의 영향으로 또 다시 현모양처와 가정 주부 이데올로기가 부각되었다. 1970년대 이후 급격하게 부상하는 중산층은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면서 아내가 가정주부로서 자녀양육을 전담하게 되는 계층으로 등장한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이 어머니가 전적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 것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 동안인 불과 30년 정도의 일이다. 현재 한국 중산층의 모성 이데올로기는 비록 서구의 모성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적 모성 이데올로기를 출현시켰다는 점에서 서구 백인 중산층의 것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문소정, 2001; 신경아, 1999; 윤택림, 2001; 이연정, 2001). 급격한 산업화 과정이라든가, 교육을 통해 입신을 강조하는 유교적 전통 등과 같은 요소들은 한국 근대 시대의 모성담론을 살피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화라는 거대한 내적, 외적 기획은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에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 도시 중산층 가족은 대체로 성별 분업, 즉 돈 버는 것과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아버지, 가정을 돌보는 것과 가사노동 및 육아를 전담하는 것은 어머니라는 성역할 구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모성이 자연스런 성인 여성의 당연한 역할로 인식되어, 여성을 억압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모성 이데올로기인데, 즉 여성의 위치는 가정이며 가정에서 여성의 임무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말한다. 여성의 이런 역할들은 성별 분업이라는 맥락 속에서 정당화된다. 즉 남녀의 서로 다른 역할은 상호보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입각해서, 결혼한 여성이라면 취업을 했든 안했든 가사노동, 자녀의 양육 및 교육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이다(이연정, 2001: 35). 이를 통해 여성의 모성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의 능력과 한계를 규정하게 되며, 또한 동시에 자녀의 잠재의식과 사회화 과정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내면화된다. 결국 모성 이데올로기는 어머니와 자녀의 경험을 가족이라는 영역에 국한시킴으로써 여성을 고립시키고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의 사회화를 이념적으로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혼 여성의 취업 요구가 증가하고 질적인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모성의 강조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많은 측면의 가족 복지를 여성에게 떠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많은 기혼여성들은 근대적 산물인 모성이데올로기와 자신의 자아 실현이라는 직업생활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성들이 전통적인 규범이나 지배적인 사회관념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일상적 경험에 비추어 개념을 수정해 가는 추세를 볼 수 있다(노영주, 1996, 2000; 신경아, 2001). 모성을 생물학적 본능으로 규정해 온 전통적 규범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즉 출산 후 아이를 키우고 일상생활에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면서 모성이 생물학적 본능이라는 지배적 관념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아이와의 생물학적 관계가 갖는 자연스러움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의 의식 속에서 아이와는 분리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어머니들의

두드러진 자기찾기에 대한 의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독립적인 자아의식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는데 이러한 변화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990년대의 어머니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전통적 규범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다. 전업주부들은 여전히 양육과 가사노동에 전념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자아실현과는 별개의 것임을 느끼기 시작하고, 취업주부들은 훨씬 더 분명하게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의 방식들을 선택하고 있다. 즉 전통 사회의 규범은 어머니 역할 속에서 자아라는 영역을 분리시키지 않은 반면, 오늘의 여성들은 모성과 자아의식을 더 이상 단일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취업여성들에게 있어서 직업생활은 단지 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또 다른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일 다닐 때는 뉴스도 많이 듣게된다거나, 직장 나가면 시야가 넓어진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의 직장생활은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넓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취업은 개인적 관심과 관계를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기회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단지 한국 사회에서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생존을 위한 직업활동에서 자기실현을 위한 직업활동으로의 의미 변화는 오늘날 서구 산업국가들의 여성의 삶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론 여성의 직업활동은 경제적 이득도 가져오겠지만,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나 남편에게 종속된 삶으로부터 벗어난 자기만의 삶의 가능성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직장생활의 의미에 대한 취업여성들의 의식은 또한 좋은 어머니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을 가진다. 아이를 키우는 일과 직업을 갖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는 통념과는 달리 취업주부들은 좋은 엄마=자기발전을 하는 엄마=일을 가진 엄마라는 새로운 공식을 제시한다. 취업여성들은 직업활동을 통해 자기 발전에 대한 욕구가 실현되었을 때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긍

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취업여성들 사이에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의미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고, 또한 노동시장에서 성별분업의 유연화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많은 측면에서 근대적 모성 이데올로기를 여성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가계안정을 위해 어머니의 경제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근대적 모성은 여성을 가족과 아이 키우기에 전력을 다하도록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근대 사회로의 발전 과정이나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별분업은 그 시대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성별분업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접근은 가족내 성별분업, 특히 여성 억압의 기제로서 모성역할의 전담이라는 문제를 밝히고자 했다. 즉 성별 분업의 정당성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성의 거부나 수용이나 하는 이분법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성의 비판=모성의 거부, 모성의 찬양=모성의 수용이라는 논쟁을 되풀이하는 한계도 드러냈다(이연정, 2001).

따라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성담론은 근대 사회의 모성을 수용하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앞에서 살펴본 백-게른스하임의 서구 근대화 과정과 여성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화 과정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해석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즉 오늘날 모성의 경험은 여성들의 당연한 과제, 즉 기존의 근대적 모성 이데올로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여성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모성과는 다른 성격으로서 오늘날 여성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수용한다면 오늘날 한국 여성들은 더 이상 모성과 자아실현을 일치시켜야 하는가 분리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

다. 단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모성담론이 요구될 뿐이다. 근대 시대에 요구되었던 모성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모성의 의미에 대한 담론이 요구된다.

이같이 최근 한국에서 다루어진 모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한결같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맥락과 같은 요인들을 무시한채 생물학적 측면만을 강조해 온 신화 혹은 이데올로기로서의 근대 모성을 비판하고 있다. 모성을 절대화하거나 모성에 내포된 현실적 긴장을 고려해서 모성을 새롭게 담론화시키는 시도, 모성이 생물학적 속성이 아닌 사회적 맥락, 즉 변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모성 관념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모성을 제도로서가 아닌 여성 삶 속의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모두는 근대 모성의 무비판적 수용에 대한 거부인 것이다. 이제 어머니 되기는 여성 개인의 선택 사항이 되었다는 점, 새로운 시대의 어머니 되기는 굴레가 아닌 여성 자신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점, 그리고 모성 경험은 양육경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한 경험이며, 관계의 경험이고,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경험이라는 점은, 오늘날의 새로운 모성이 여성 개인에게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가족과 관련된 문제인 어머니 역할이나 자녀양육이 모두 여성 개인에게서 출발하고 있다면, 과연 앞으로의 가족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가족보다는 여성이나 아동, 노인과 같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방향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다음은 변화된 사회와 여성 그리고 모성의 의미와 관련지어 앞으로의 한국 가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변화된 사회의 한국 가족정책 방향

변화된 사회에서의 한국 가족정책은 우선 근대 가족이 추구했던 근대적인 핵가족 이상이나 어머니 역할, 부모자녀 및 부부 관계 같은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서구적

근대화에 대한 모순뿐만 아니라 한국적 근대화를 극복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이는 물론 모든 근대적인 것은 나쁜 것, 버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성과 관련된 모성문제나 가족문제는 더 이상 '양분된 근대(Halbierte Moderne)'의 지속적인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반성과 더불어 오늘날 한국 가족의 삶의 배경이 되는 변화된 사회구조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자는 앞에서 살펴 본 근대 모성과의 관련시켜서 변화된 사회에서의 한국 가족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근대 핵가족 이상으로부터 새로운 가족 이미지의 수용으로

우선 한국 가족정책은 근대적 가족 이상과 신화(핵가족의 신화, 모성의 신화)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족 이미지로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핵가족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근대적 믿음을 가지고 가족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가족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실제 가족과 가족 성원들의 일상생활이나 요구와는 무관한 공허한 정책이 될 것이다. 가족 문제, 청소년 문제, 사회 문제의 원인을 소위 결혼가정에서 찾는다거나 혹은 이혼과 같은 가족 해체를 사회 문제의 주범으로 보는 것 또한 가족과 사회간의 유기적 관계를 외면하는 이데올로기적 오류이며 가족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다(함인희, 2001; 서수경, 2001). 최근에 발표된 가족 연구들(조은, 1999; 조정문, 장상희, 2001; 서수경, 2002)은 종종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발전이라는 구상 안에서 한국 가족의 미래를 진단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과 함께 다양한 가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정 형태의 가족생활만을 고집하지 않고 개인의 고유한 상황과 욕구에 따른 개별적인 가족생활을 인정하게 되는데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개방결혼, 서로가 서로를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 때는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결혼생활 등도 나타나며, 심지어 서로를 구속하는 결혼보다는 독신이나 동거생활을 선호하기도 할 것이라고 본다. 정보사회에서는 독신으로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공동체를 결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취미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공동가족을 결성하기도 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산업사회의 전형적 가족인 핵가족 이외에 동거가족, 독신 가족, 계약결혼, 개방결혼, 동호인 가족, 동성에 가족,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등장할 것이다. 물리적 몸은 가정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바깥 사회 관계망과 시간을 보냄으로써 가족의 의미가 재정의될 것이다. 네트워크형 가족이 새로운 가족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러한 파격적인 형태의 생활유형들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적 가족생활의 패턴이 변하지 않기를 막연하게 기대한다면, 이는 결국 가족 성원과 한국 사회가 더 큰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현실적인 가족 성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족정책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변화된 사회의 새로운 가족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책에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 2) 자유로운 선택이자 자기실현으로서의 모성

두 번째로 변화된 사회에서의 한국 가족정책은 여성의 당연한 어머니 되기의 근대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어머니 되기는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 사항이며 자기실현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여성들, 특히 서구 산업국가들에서는 더욱 더 어머니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며, 모성의 경험을 통해 자기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경향이 있다.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가족정책이 사회종합정책의 중요한 이슈로서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경제적 조치들을 통해 가족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런데 서구의 가족학자들은 이러한 그들의 가족정책이 낡은

정책이라고 비난한다.

기존의 가족정책에서 제기되는 돈을 더 많이 혹은 가족수당을 개선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조치들은 젊은 어머니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 새로운 갈등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 왜냐하면 자녀수당과 학자금 용자만으로는 주거에서 교통에까지 이르는 아이의 적대적인 환경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치들은 어떻게 어머니 노릇이 여성의 나만의 인생이라는 것과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 즉 경제적인 관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관습적인 정책 도구들, 즉 석탄과 쪼갠 아이에 대한 보조금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수단들은 오늘날 어머니 노릇과 결부된 새로운 문제의 차원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 즉 여성의 삶의 변화들에서 출발할 수 있다. 여성의 삶의 변화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대 사회의 대변혁과 함께 시작된 기나긴 역사적 발전의 최종 산물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변화들은 고립적이거나 제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 체계로부터 직업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재판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역 속으로 파고든다. 이처럼 다양한 변화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현실이 탄생하므로 그것은 단번에 없애버릴 수 없다. 여성만의 특수 역할로 되돌아가는 길은 막혀버린 것이다.(백-게른스하임, 2000: 257-260)

그들은 한국 사회와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적 지원을 통한 가족정책을 실행해 왔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런 관점이 잘못된 것이며 여성의 삶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한국 가족정책에 있어서도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라는 낡은 처방이 아닌 여성의 삶의 변화라는 측면이 적극 고려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나의 인생이라는 여성의 삶의 변화 측면은 한국 여성들의 모성경험이나 기혼여성의 가족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노영주, 2000; 양옥경, 김혜영, 2001)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제보자들의 모성경험은 어머니로서의 경험이 양육 경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한 경험이며 관계의 경험이고, 이러한 경험은 여성이고 어머니로서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경

합이며, 사회문화적 의미를 학습하는 하나의 장인 동시에 사람됨의 향상에 기여하는 하나의 교육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당사자의 사회적 맥락과 정체성 정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며, 이데올로기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상이한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노영주, 2000: 82)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정책의 기초에는 반드시 여성의식과 욕구의 변화가 반영되는 성 인지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실제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주요 시각은 남성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복지정책의 효과와 타당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정책의 복지 프로그램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양옥경, 김혜영, 2001: 53)

최근 근대적 모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는 근대적 사고들에 얽매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장면들을 종종 목격한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는 늘어나는 성범죄와 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청소년 성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교육자와 청소년 그리고 부모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고도 진지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성교육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소년, 특히 여자청소년들의 성을 출산 기능으로 제한시키고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 미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순결)은 소중한 것이라는 획일적인 관점은 오늘날의 변화된 사회에서의 여성과 여성의 삶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생물학적 범주 안에서만 바라보는 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성에 관한 논의는 다른 일반적 교육 목표가 지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교육되어야 하며, 모성은 자유로운 선택 사항이 되었다는 변화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모성은 선택 가능한 것이며, 또한 자기 성장과 폭넓은 삶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것 또한 각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언제나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변화된 사회에서의 가족정책은 결국 개인에게서 출발하고 있다. 개인, 특히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했던 근대적 관점의 가족정책은 앞으로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개인에게 있어서 가족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장애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간의 밀접한 정서적 관계를 통해 폭넓은 인생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자아실현의 장소라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개인으로부터 출발한 변화된 사회의 가족정책은 개인과 가족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개인의 자기실현을 추구하도록 가족집단을 원조하는 것이 가족복지의 핵심이라고 보는 일본 학자의 최근 연구(노노야마, 하사야, 2001)도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자기실현을 위한 모성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 가족정책에서도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공적 사안으로서의 여성 및 가족 문제

한국 가족정책을 구상하는데 염두에 두어야 하는 세 번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여성들의 어머니되기가 오늘날 자유로운 선택사항이 되었다는 것은, 근대 시대 여성들의 주요 과제인 자녀양육이나 노인 부양 같은 일들이 더 이상 가족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은 근대 모성애적 사고를 가지고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전히 여성들의 과제임을 주입시킨다. 가족과 사회를 분리된 영역으로 이분화 하는 이미지는 통합되어 있는 세계를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신화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공사 영역의 이분법은 가족과 사회를 좌우 대칭에 둬으로써 가족은 무자비한 세상 속의 천국이요, 가족관계는 사회관계와는 달리 이타적이고 비경쟁적이라 보고, 나아가 가족은 자족적 집단이요, 독립적 실체이며 사회로부터 자유롭고 고고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제도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족은 부적절한 가족으로 비판과 우려의 대

상이 되기도 한다(함인희, 2001). 만약 가족정책이 계속해서 가족내의 과제와 역할을 여성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는 각 개인의 복지와 성장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회피하고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변화된 사회에서의 가족과 가족 성원들의 현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백-게른스하임은 오늘날의 모성의 의미는 단순히 사적인 문제가 아닌 미래 사회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았다.

우리는(여성들) 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는 것도 거부하며, 또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 사회가 내세우는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한다. - 우리는 여성에게 지킬 임무가 주어졌던 인간적 가치들이 사적인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 사회의 조직화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해야 한다. 인간적인 원리에 따라 조직된 사회, 육아가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밀쳐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아이의 성장을 돌보는 일이 일반적인 공적 우선권이 되는 사회 - 이것이 페미니즘 속에 들어 있는 비전이다. 유토피아일까? -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만, 다시 말해서 나만의 인생을 희생하도록 부당하게 요구 당하지 않은 채 아이를 갖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변화로부터 해방으로 시작된 근대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역행할 것인가의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 아이를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백-게른스하임, 2001: 263)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부모 역할의 어려움,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의 심각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아동, 청소년 문제의 증가나 부부 문제를 진단할 때 가정교육이 부재하다고 말하거나 혹은 가족의 중요성만을 인식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책적 책임에 대한 깊은 인식과 실천은 매우 희박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대체로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을 유지시킴으로써 가족을 사회로부터 보호하고 가족제도가 강화되도록 하는 것을 주목표로 삼아 왔다. 다시 말해 가족은 사적인 영역으로 규정되어 국가나 사회가 정책

을 통해 가족의 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결국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엄밀히 구분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을 방치하여 오히려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차단된 가족이라는 고립된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들, 특히 여성들은 가족과 관련된 그들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내야 한다. 심지어 사회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교육, 교통, 환경 등의 문제들조차 홀로 힘겹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은 가족이 아동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 양육 및 보호,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기관으로 보고, 어떤 사회기관도 이를 대체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출산과 양육은 국가의 기본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약 이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노동력의 양과 질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가족이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가족은 본래 그들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결과는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도 질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가족의 생활에 정책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며, 따라서 가족정책의 개별 방안들은 사회와 연관된 가족의 기능들을 구체적으로 장려하고 보호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박민자, 1995; 서수경, 2001; 이진숙, 2001)

오늘날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문제는 더 이상 가족의 문제 해결 능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는 국가가 정책적인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공동의 과제인 것이다. 사회화의 기능 및 어떤 다른 사회 기관도 가족을 대체할 수 없는 기능과 역할을 가족이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에 사적인 영역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것들이 변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공적 사안이 되었다는 사실은 비단 여성과 가족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차원만은 아닌 듯 하다. 백(1991)이 지적하듯이 위험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이제 비정치적인 것이 정치화되는 시점에 살고 있으며,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 사안이자 공동의 과제이며 우리 미래의 문제인 것이다.

### III. 결론 및 제언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어머니됨은 생물학적 차원으로만 규정되는 개념이 아닌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배경 가운데 생성되는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가족을 위한 희생적 어머니상은 근대화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했던 내적 건설 계획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근대적 모성은 변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더 이상 강요되거나 절대화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근대적 의미의 제한된 모성이 아닌, 여성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나만의 인생, 자아실현, 개인의 발전을 무엇보다 요구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변화의 경향이 반드시 오늘날의 여성들이 어머니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늘날의 모성은 근대적 모성애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오늘날의 모성의 경험은 여성들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제였던 근대적 모성 이데올로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여성들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 가족정책은 생물학적 차원만 고려한 강제적인 근대적 모성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한 변화된 사회에서의 새로운 모성의 의미를 숙고한 현실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근대 모성의 생성과 발전 과정을 살펴본 결과 무엇보다 다음의 세 가지가 앞으로 한국 가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

째, 근대 시대의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고 이상적 가족구조로 여겨졌던 근대 핵가족의 이상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가족정책은 근대적 가족 이상과 신화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족 이미지의 수용에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새로운 가족 이미지의 수용이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형태로서 인식하지 않고 현재 우리 사회와 정책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수용해야 함을 의미하며, 또한 새로운 가족 이미지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오늘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여성들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 되었다는 점과, 그러한 선택의 동기는 점점 더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닌 자아실현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여기에는 여성, 노인, 어린이, 청소년 등의 모든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다)을 위한 정책은 여성들의 변화된 삶의 차원들, 즉 모성의 경험과 가족의식의 변화 같은 점들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들의 어머니됨을 생물학적 개념으로만 규정하는 근대적 시각으로 고정시킨다면 가족정책도 계속해서 여성들의 가족내의 과제와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인적자원의 개발과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국가적 목표와도 대치되는 것이며, 경쟁력에서도 뒤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근대 시대에 여성의 과제였던 자녀양육과 노인부양 같은 사적인 일들은 오늘날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결국 오늘날 모성경험 같은 여성들의 삶의 변화라는 측면은 국가 발전과 개인 복지를 위한 방안 모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연구자가 제시한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한국 가족정책에 수렴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은 여성과 가족 연구자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서구와 한국 사회에서의 근대 모성 담론을 통해 살펴본 세 가지 가족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합의된 가족정책의 방향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본 연구가 변화된 사회와 여성들의 삶의 맥락을 고려한 모성의 의미와 가족정책에 대한 담론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 ■ 참고문헌

- 노노야마, 하사야(2001). 가족복지. 나눔의 집
- 노영주(1996). 여성의 경험으로서의 어머니됨.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1(1), 35-55.
- 노영주(2000).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71-83.
- 루소, 장 자크(2000). 루소의 교육론 에밀. 안인희 편역. 양서원.
- 문소정(2001). 한국 가족의 근대성에 대한 성찰. 전통과 서구의 충돌.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역사비평사, 33-52.
- 박민자(1995). 가족정책과 가족. 가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369-404.
- 백, 울리히(1991). 공업화된 '위험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현대 독일 사회학의 흐름. 최재현 엮음. 형성신서, 339-349.
- 백-게른스하임, 엘리자벳(2000). 내 모든 사랑을 아이에게?. 이재원 옮김. 새물결.
- 서러, 새리 엘(1996). 어머니의 신화. 박미경 옮김. 까치.
- 서수경(2001). 독일과 한국의 가족교육 비교 연구-사회정책적 차원. 한독교육학연구, 6(2), 43-67.
- 서수경(2002). '포스트모던 가족' 담론과 한국 가족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40(5), 95-108.
- 신경아(1999). 1990년대 모성의 변화: 희생의 화신에서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 모성의 담론과 현실. 심영희 외 공편, 나눔신서, 389-413.
- 양옥경, 김혜영(2001). 가족의식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방향: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3(2), 29-55.
- 윤택림(2001). 한국의 모성. 미래인력연구원.
- 이연정(1999).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 모성의 담론과 현실. 심영희 외 공편, 나눔신서, 21-42.
- 이진숙(2001). 새로운 시대의 결혼문화와 가족의 미래. 탈근대세계의 사회학. 우리사회문화학회편, 157-182.
- 조 은(1999). 가족제도의 운명과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 창작과 비평, 봄호, 45-53.
- 조정문, 장상희(2001). 가족사회학.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 아카넷.
- 함인희 (2001). 다양한 가족: 신화로부터의 탈출.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이동원의 공저. 양서원.
- 페스탈로치, 요한 하인리히(1999). 페스탈로치가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편지. 김정환 옮김. 양서원.
- Beck, U. (1986).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 Beck, U., Beck-Gernsheim E. (1990).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 Beck-Gernsheim E. (1998). *Was kommt nach der Familie?*. Verlag C. H. Beck Muenchen.
- Peuckert, R. (1991). *Familienformen im sozialen Wandel*. Leske+Budrich Opladen.
- Schuetze, Yvonne (1991). *Die gute Mutter. Zur Geschichte des normativen Musters "Mutterliebe"*. Kleine Verlag Bielefeld.